■ '자성과 쇄신 결사' 연속 기획 ① 결사 어떻게 시작 됐나

내부 정비 몰두 반세기 넘어 '국민속으로' 첫걸음 딛다

'자성과 쇄신 결사' 주요 일지

–2010년 11월 4일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 용산 참사 현장 방문.

–2010년 1월 1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기자회견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 선언.

–2010년 6월 8일
조계종 화쟁위원회 신설.

–2010년 12월 18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0일 108배 정진 입재.

–2011년 1월 21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개최.
이후 전국 교구본사별로 결의대회 개최.

–2011년 1월 2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기자회견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선언.

–2011년 2월 18일
4대강사업 낙동강 낙단보 건설현장서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법회 봉행.

–2011년 3월 23일
민족문화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

–2011년 6월 30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발족.

–2012년 3월 28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입재.

–2012년 6월 7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제1차 쇄신계획 기자회견.

–2012년 5월 18일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
(현 종단쇄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2년 8월 27일
노동위원회 설립.

–2012년 8월 29일
조계사서 시민초청 무차대회 개최.

–2013년 3월 11일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 5차 회의서 신대승불교의 불교관과 실천론으로 '중도의 눈으로 본 본래부처와 동체대비론' 채택.

–2013년 6월 17일
제2기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 임명.

–2013년 6월 22일
사부대중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출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7일 제2기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을 임명하면서 결사추진본부는 다시 2년간 순항하게 됐다. 이에 본지는 종단차원의 첫 결사인 자성과 쇄신 결사의 지난 2년간 행적을 추적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쇄신 결사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보는 기획을 4회에 걸쳐 연속으로 게재한다.

종단 차원 첫 결사
내부문제 뼈저린 반성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부재가 근본 동인

'소통 화합하는 종단' 서원
지속적인 쇄신결사 뒷받침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 등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용산참사 현장 방문
화쟁위, 결사추진본부
종단쇄신위 설립으로
한국불교 분위기 쇄신 탄력

제2기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 재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도법스님을 재임명함으로써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김형주 기자

2011년 1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한국불교는 오로지 전통과 역사, 관습에만 매몰된 채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함께 해왔던 모습을 망각한 채 국민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과 인식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그런 사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불교 내부문제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결사를 시작한 근본적인 동인이었다. 그 후 자성과 쇄신 결사는 제33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으로 줄기차게 전개됐다. 같은 해 6월 '작은 총무원'을 표방하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출범했고, 본부장에 도법스님이 임명됐다. 33대 집행부가 문을 연 자성과 쇄신 결사는 과거의 결사와는 궤를 달리했다. 고려시대 정혜결사나 근세 봉암사 결사가 몇몇 스님들이 이끈 반면, 쇄신 결사는 종단 차원에서 추진한 첫 결사이자 사부대중 전체가 참여하는 결사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 시대적 요구

쇄신 결사는 시대적 요구이자 종단적인 과업이었다. 그동안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대부분의 역량을 자존과 자립에 쏟아 부어왔다. 정화부터 시작해 종단개혁까지 숨가쁜 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하지만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위시한 제33대 집행부는 달랐다. 한국불교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과 사회적 요구를 받아 안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09년 10월 당선 소감문에서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취임 하루 전 총무원장으로서 첫 행보를 당시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용산참사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요익중생(饒益衆生)'을 기조로, 불교가 사회갈등의 중재자이자 소통의 매개자로 나서겠다는 서원을 실천한 것이다.

이는 '화쟁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한 '화쟁위'는 2010년 6월 신설됐다. 화쟁위를 통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문제 등 종단 내부 갈등뿐 아니라, 4대강 문제라는 사회 갈등까지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화쟁위는 도법스님이라는 재야의 인물을 전격 발탁하면서 논공행상이 주를 이루던 종단 인사시스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해야 한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다.

역대 총무원이 쌓아놓은 종단 안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에 매진해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력했던 33대 집행부는 난관과 맞닥뜨렸다. 내우외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했던 집행부의 계획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봉은사 문제, MB정부의 전통문화 인식 부재 등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종단을 흔드는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2년 백양사 승풍실추 사건은 종단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한국불교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태풍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이미 결사 체제로 전환했던 종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종단 내에 만연해 있던 각종 부조리와 발전을 저해했던 법제도를 바꾸는 틀을 만들어냈다. 2012년 5월 설립된 종단쇄신위원회가 그것이다.

■ 의식개혁 움직임 뒷받침

결사추진본부가 종단 구성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본래 면목 회복에 주력했다면, 종단쇄신위는 의식개혁을 뒷받침하고 불편부당한 종단 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종단쇄신위는 위원장에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현 원로회의 의장)을 추대했다. 또 위원은 원로의원, 선교율 대표 중진, 교구본사주지 대표, 중앙종회의원 대표, 비구니 대표, 중앙종무기관 대표, 신도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쇄신위가 사태 무마용이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사부대중이 함께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견인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매주 1차례씩 소위원회를 열어 종단 과업을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쇄신안들이 총무원과 중앙종회에서 속속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쇄신위의 위상은 설명된다.

지난 2011년 7월5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현판식. 불교신문 자료사진

더불어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야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고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8월 문을 열었다. 노동문제라는 민감한 사회이슈를 전담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기구인 노동위는 만들었다는 자체로 반향을 일으켰다.

■ 환골탈태 의지 확인

이같은 화쟁위, 결사추진본부, 종단쇄신위, 노동위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제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데 기여했다. 위기에 봉착하면 집행부 사퇴, 비상체제 출범, 종단 사태로 번지는 고질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쟁위원회 전 부위원장 원택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은 "도법스님이란 종단의 인적 자산을 일찍부터 요직에 기용하며 종단이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줬다"며 "사회문제를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종교인의 자비심으로 순수하게 다가가 다독이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믿음직한 불교와 종단을 봤다"고 평가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총무원장 스님이 도법스님을 다시 제2기 결사추진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지난 4년간 전개한 '소통과 화합'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변화를 임기 끝까지 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

불기2557(2013)년도

3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57(2013)년 3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2557(2013)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 안

● **시행 및 입교일시**

구분	입교일시 및 접수	승가고시 시행일시
비구1차	10월30일(수) 오후5시까지	10월31일(목) 오전9시~오후4시30분
비구2차	10월31일(목) 오후5시까지	11월 1일(금) 오전9시~오후4시30분
비구니	11월 1일(금) 오후5시까지	11월 2일(토) 오전9시~오후4시30분

● **장 소**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충남 공주시 소재)

● **응시 자격** :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와 결계포살에관한법 제9조에 의거 「결계록에 등재」되고, 아래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갖춘 자.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법계 품수자
②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점수를 90점 이상 취득한 자(2013년 10월 3일 이전까지 인정)
③ 승가고시법 시행령 별표(1, 1-2, 1-3)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소임(기간)을 응시자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 지원 자격 획득을 위한 소임 신고 및 관리 지침"을 참조(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하여 증빙서류를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여야 함.
(소임 자격문의 : 총무부 02-2011-1704)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권리제한

1)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 횟수 6회를 기준으로 1~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간 유예하며,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합니다. **2013년 승가고시부터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합니다.**
2)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대중결계 및 포살(결계록 등재) 확인은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254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08~2009년 대중 결계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문의 : 총무부 02-2011-1703**

●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 양식, 종단 홈페이지 및 교구본사 비치)
• 수행이력서(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수행이력 증빙자료(안거증 사본, 교육경력 증명서, 학위 및 학력증명서 등)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접수 기간 : 불기2557(2013)년 8월 26일(월) ~ 9월 6일(금)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와 전형료를 접수 기간 동안(마감일 소인 인정불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재적교구본사에서 접수합니다(거주사 및 재직교구본사 접수 불가).
• 직할교구 재적스님의 경우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접수합니다.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담당: 양진호 행정관 ☎ 02-2011-1809

● **전형료**
• 금액 : 10만원
• 납부 : **승가고시 원서를 제출하는 교구본사로 납부**
• 재적 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23-01-0534-462〉,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납부해야 하며(미납 시 서류전형 제외), 서류전형 탈락의 이유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 **승가고시 과목 및 유형·배점**

교 시	시간	과목 및 내용	유형	배점
1교시	09:00 ~ 10:00	조계종사(공통 필수)	논술(자유서술형)	100점
	10:00 ~ 10:20	휴 식		
2교시	10:20 ~ 11:20	선택1-수행(선·교·율)분야 선택2-전법·포교분야	논술(자유서술형)	100점
	11:20 ~ 12:30	점심공양		
3교시	12:30 ~ 16:30	수행이력(수행이력서) 평가 및 면접		100점
합 계			300점	

● **승가고시 방법**
가. 논술(자유서술형)
• 1교시 조계종사는 공통 필수과목으로 응시자 전원이 시험에 응시해야 함.
• 2교시는 응시자가 선택한 분야에서 출제된 3개문항 중 1개문항을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함.
• 논술문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된 '3급 승가고시 논술문제 핵심주제어 (홈페이지 공지사항 2257번 게시물)'에서 3개문항을 출제함.
• 논술시험의 답안지 분량은 2,000자(소정의 답안지 2페이지 이상) 내외로 작성함.
나. 면접
• 3교시 면접은 응시자가 제출한 수행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위원들의 질의에 응시자가 답변하는 형식임.
다. 서류전형
• 수행이력서는 수행 및 교육, 전법·교화활동(포교, 소임, 대사회활동)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특히 수행이력은 심사·평가하여 점수에 반영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기 바람.

● **합격자 발표** :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2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

● **유의 사항**
• 응시자들은 해당 시험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전통불교문화원에 도착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승가고시 당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 응시원서 양식, 수행이력서 양식, '핵심주제어' 등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선택과목을 기재해야하며, **접수 후 과목 변경 불가**합니다.
• '키, 가슴둘레, 몸무게'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번호는 승가고시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승가고시의 응시자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 불교신문 공고 및 조계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승가고시 합격이 취소됩니다.